

음성 가이드 : 다이큐칸 지옥

가장 많이 증기가 분출되는 곳에는 무서운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 이름하여 다이큐칸 지옥입니다.

운젠은 일찍이 불교 성지의 중심지였으며, 이 지역의 이름에는 승려가 불교로부터 받은 영향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도 그 중 한 곳입니다. 전승되는 이야기 중 다이큐칸 지옥이란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게 되는 16개의 지옥 중 하나이며, 거짓말을 한 죄인이 떨어지는 곳으로 지옥의 귀신이 혀를 바늘로 찌르거나 뽑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 다이큐칸 지옥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화산 분출구에서 뿜어져나오는 뜨거운 가스가 내는 소리는 특히 밤에는 더욱 더 땅 아래에서 나는 비명소리처럼 들립니다.

다이큐칸 지옥은 운젠 지옥 중에서 가장 활동이 활발한 곳입니다. 이곳 열탕은 특히 더 뜨겁고 산도가 강합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가장 활발한 장소가 천천히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옛하치만 지옥은 가스 분출이 멈췄고, 원래 지옥이었던 원생 늪은 아름다운 늪지로 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다이큐칸 지옥도 조용한 곳으로 바뀔지도 모릅니다.